

■ 헌법소송법제 연구센터 발족 인사 ■

헌법소송법제 연구센터 발족 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공현 대표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제헌 헌법 이래 헌법재판제도가 존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8년 지금과 같은 모습의 헌법재판소가 도입되기까지 40년의 기간 동안 20여 건의 헌법재판사건이 심리되었고, 그 중 5건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지난 22년 남짓한 기간 법령 490여 조문과 370건 정도의 국가 공권력행사가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룩한 데에는 활발한 헌법재판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활성화에 따라 이제 헌법 조항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직접 적용되고, 이에 따라 헌법의 해석과 적용은 어느 부문에서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에도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의와 헌법소송의 위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헌법소송팀을 발족하고, 뉴스레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